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노동본부 보도자료**

문의

김주영 의원실

연락처

02-784-5260

e-mail

gimpolovekjy@gmail.com

**<더불어민주당 노동본부>**  
**대구 성서산단 출근길 유세 이어**  
**니카코리아 파업 현장 방문**  
**최철호 노동본부장 “노동시간 단축 · 산재예방”**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노동본부장 최철호)가 대구시민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거리 유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최철호 총괄선대위 노동본부장은 5월 22일(목),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출근길 현장 유세를 진행했다.

최철호 노동본부장은 이날 유세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이재명 후보의 노동공약을 알렸다.

이어 최 본부장은 “산업현장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재명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 서부지역 산업현장에서 총 1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전년대비 산재 사망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실을 언급한 최 본부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올해 대구 서부지역 산재 사망사고, 전년 대비 300% 증가 <https://www.newsmmin.co.kr/news/118790/>)

이후 25일째 파업 중인 니카코리아 대구 공장 현장을 찾아 노동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본부장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사측의 태도와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으로서 국회 환노위에 의견을 전달하고,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지원하겠다”는 연대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러한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끝/

첨부. 선거유세 사진





